

교직주부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와 가사노동가치인식이 시간제약지각과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Family Life Cycle Stages and Perception of Housework's
Value on Perceived Time Pressure and Role Conflict in
Housewife-teachers.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조교수 장윤옥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Jang Yoon Ok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V. 결론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family life cycle stages and perception of housework's value on perceived time pressure and role conflict in housewife-teach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29 married women teachers that teach in junior or senior high schools in Taegu.

A questionnaire was used as the survey method and for the method of data analysis, factor analysis, MANOVA, and Scheffé test as a post-hoc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re wer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of family life cycle stages and perception of housework's value on perceived time pressure and role conflict.
- 2) The main effect for family life cycle stages was significant.
- 3) Followup univariate F-tests revealed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for marital, parental and homemaker's role conflict.

I. 서 론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가족과의 관계속에서만 인정되었고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사회적 지위는 부여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가치관의 변화로 여성의 역할이 가정밖으로 확대됨에 따라 여성도 사회적 관계에서 그 위치를 확보해 가고 있다. 특히, 자아실현이나 개인의 자립을 강조하는 서구의 가치관과 교육의 영향으로 여성의 자아실현욕구가 증대하면서 고학력여성의 직업진출이 증가하고, 결혼 후에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하는 양상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성취업자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취업하지 않을 수 없는 저학력여성취업자가 대부분으로 주로 저임금하위직에 종사하였으며, 대학이상의 고학력여성취업자의 취업률은 매우 낮았으나, 최근에 여성취업자 중 저학력여성취업자는 1970년 83.6%, 1980년 63.9%에서 1989년 42.2%로 감소하고 대학이상의 고학력여성취업자는 1970년 1.5%, 1980년 3.1%에서 1989년 7.6%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中立職이라 할 수 있는 사무직종사자의 여성구성비가 1966년의 11%에서 1985년에는 35%, 1989년에는 39%로, 上位職이라 볼 수 있는 전문·행정직종사자의 여성구성비는 1966년 16%에서 1985년에는 29%, 1989년에는 34%로 급증하였고, 취업여성 中 기혼여성의 비율도 1977년 9.7%에서 1987년 25.5%로 증가하였다(경제기획원, 각년호).

특히, 구인난 현상을 기혼여성노동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로 여성의 고용기회가 증대되고 여성자신의 자아실현욕구 등 개인적 요구에 의해 직업의식도 변화하게 되어 고학력기혼여성의 전문직 취업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직은 오랜 기간의 수련을 거쳐 획득한 체계적 이론과 기술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높은 직업적 책임과 경쟁을 요구하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고 직업에 전념할 것을 기대하는 직종이므로(Rapoport와 Rapoport, 1971; Sekaran, 1986) 전문직에 취업한 주부는 자아실현의 욕구충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는 반면에, 이

러한 전문직의 특성을 지닌 직업역할과 가정역할을 양립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시간제약을 지각하고 역할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전문직취업주부는 수입이나 직업지위에 상관없이 남편이나 다른 가족구성원들에 비해 여전히 전통적인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책임을 맡도록 기대되어 질 때 특히 취학전 자녀가 있거나 자녀의 수와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족생활주기단계에 있을 때 시간제약지각은 더욱 높아지고, 전문직역할과 부모역할간의 갈등으로 남편이나 다른 가족생활주기단계에 있는 전문직취업주부보다 역할갈등의 정도도 증가하게 되어(Bird와 Ford, 1985) 이것이 부부역할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Nicola, 1980).

그러나 많은 전문직취업주부들은 충실한 가족의무수행과 직업에서의 출세라는 2가지 목표에서 갈등을 지각한다 하더라도 가족생활과 자녀의 중요성을 격하시키고 싶어하지 않고(Pines와 Kafry, 1981), 직업역할이 가족역할을 방해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가족역할요구가 직업역할에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며(Pleck, 1977), 직업역할, 아내역할, 그리고 어머니역할을 겸하는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Superwoman"이 되고자 한다(Poloma, Pendelton와 Garland, 1981).

또 대부분의 주부들이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이고(임정빈·김명희, 1984; 박인경, 1986; 김성희, 1989), 취업주부의 56.7%가 아내가 남편보다 가사활동을 더 많이 수행해야 한다고 하며(Slocum과 Nye, 1976), 젊은 아내들이 가사노동의 역할분담을 더 지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연령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Albrecht, Bahr와 Chadwick, 1979)고 한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취업주부들이 가족역할에서 자신들의 가장 큰 만족을 추구하는 한 가사노동분담에 있어서 변화를 강력히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고(Degler, 1980), 전문직취업주부들도 직업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주부자신이 가사노동의 주체자라는 의식을 여전히 가질 뿐만 아니라(이기영, 1982) 가사노동은 주로 여성의 일이라 생각하여 남편의 가사협력력을 많이 기대하지 않으며(송혜림, 1988), 가사노동의 불공평함을 그들 스스로 규범적인 것으로 받아 들이는(Berk, 1976), 여전히, 상당히 "전통적"인 가사노동분담태도를 가진다고 하

졌다.

이처럼 전문직취업주부들이 가사노동에 대해 심하게 불만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에서 어떤 기쁨을 발견한다면, 가사노동수행에 대해 가지는 불만의 주요한 근원은 지각한 시간 제약일 것으로 추정되며(Hiatt, 1986), 이것이 가정 역할갈등의 근원이 될 것(Hall과 Gordon, 1973)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전문직취업주부가 지각하는 시간제약의 정도와 가정역할갈등의 정도는 가사노동에 대해 불만스러워하지 않더라도 가사노동요구량이 많은 시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사노동분담을 기대하거나 혹은 아무리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어떤 영역의 가사노동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전문직취업주부가 인식하는 가사노동가치인식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문직취업주부가 나이가 들고 정상적으로 가족생활주기의 각 단계를 거쳐 생활하게 될 때 각 가족생활주기단계에서 자신의 가사노동가치인식수준에 따라, 그리고 가사노동가치인식수준이 서로 비슷한 전문직취업주부들이라 하더라도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서로 다른 영역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정도로 시간제약과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고, 비슷한 위기에 직면하고 그리고 비슷한 발달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가족들을 어떤 범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가족생활주기단계(Mattessich와 Hill, 1987)에 따라, 전문직취업주부가 가사노동을 자신의 일로서 가치있게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시간제약지각정도과 각 역할영역에서의 갈등정도를 파악하므로써 전문직취업주부가 이중 역할을 수행할 때 각 가족생활주기단계에서 여러 변인의 복합된 상황하에서 경험하게 될 시간제약지각정도과 역할갈등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사전에 역할갈등을 줄일 수 있는 상황과 자신이 선택·사용할 수 있는 시간제약 및 역할갈등의 극복전략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주부나 전반적인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장병옥,

1985; 임정빈·정혜정, 1986; 김명자, 1991; 최자령, 1991) 전문직취업주부의 역할갈등이나 역할갈등극복 전략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이원표, 1983; 김현정, 1988; 전영자, 1991; 구혜령, 1991), 특히 취업주부의 장기계획수립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족생활주기와 다른 변인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전문직취업주부의 역할갈등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취업주부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러가지 전문직(의사, 교수, 법관, 교사, 약사, 간호사, 회계사 등)에 종사하는 주부들을 모두 전문직취업주부라는 한 범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변인들보다도 연구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직종의 특성을 통제하기가 어려웠고, 또 연구결과를 각각의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직취업주부에 일반화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전문직 중에서도 여성의 취업인원수가 다른 전문직종의 취업인원수보다 훨씬 많은 편인 교직에서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점유율이 1983년 35.2%에서 1991년 42.18%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연령별 분포도 전체 여교사 중 29세 이하의 여교사가 50.84%, 30세~34세의 여교사가 26.51%(교육부, 1991)나 된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직취업주부로 2세의 교육을 담당할 여교사의 수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이들이 전문직취업주부로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교사 자신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그들이 교육하는 청소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다른 전문직취업주부보다 교직주부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교직주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교직주부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수준,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이 시간제약지각정도과 역할갈등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며, 이 연구결과를 교직주부가 각 가족생활주기단계에 있어서, 자신의 가사노동가치인식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이 처할 수 있는 이들의 복합적인 상황하에서의 시간제약지각 및 역할갈등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생의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교직주부로 대구시내에 근무하는 중·고등학교 여교사만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교직주부 전체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

가족생활주기란 전형적인 가족이 일생동안 통과하는 연속적인 단계들과 관련시켜 사용해 온 용어이며(Glick, 1977) 가족생활에 대해 종단적인 관점을 제공한다(Duvall과 Miller, 1985). 가족생활주기의 각 단계는 한 가족이 서로 다른 행동유형을 취해야만 하는 시기를 나타내기도 하는데(Trost, 1974) 한 가정이 가족생활주기 가운데 처한 위치를 알면 상대적인 소득수준, 아내의 취업여부, 부부의 결혼만족도, 가족의 갈등 등 가정생활의 중요한 요인에 대해 전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Duvall, 1977) 주부의 시간요구를 예측할 수 있다. 또 가족생활주기는 한 가족에 있어서 stress원과 극복자원 둘다에 대한 지원과 요구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도 한다(Voydanoff와 Kelly, 1984). 따라서 가족의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가지 방법보다 가족생활주기에 의한 방법이 우월하다(옥선화, 1980). 즉, 가족생활주기 그 자체를 하나의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가족생활주기가 가족구성원의 역할, 만족도, 소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이경희, 1988).

가족생활주기의 단계구분은 연구목적에 따라 3단계에서 24단계까지 다양하다. 가족생활주기는 일반적으로 만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시간의 요구 때문에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이기영, 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가정생활주기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I 단계(가정형성기): 결혼으로부터 첫 자녀의 출산전까지의 시기

II 단계(영·유아기): 첫 자녀의 출산시부터 막내자

녀의 연령이 2세 이하인 시기

III 단계(취학전아동기): 막내자녀의 연령이 3~6세 이하인 시기

IV 단계(초등교육기): 막내자녀의 연령이 7~12세 이하인 시기

V 단계(중·고등교육기): 막내자녀의 연령이 13~18세 이하인 시기

VI 단계(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 막내자녀의 연령이 19세 이상인 시기에서 막내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의 시기(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을 하고 있으며 한 가정에 살고 있는 시기)

2.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인식

가사노동은 그 노동을 통하여 가정의 기능이 수행되고, 그러한 기능을 충분히 행함으로써 가족원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제공하여 사회안정과 복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인적·가정적·사회적 차원의 사회적 가치가 있으며(조윤경, 1988), 가족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가족구성원들의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소득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문숙재, 1991).

그러나, 흔히 가사노동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나 지위가 낮은 일로 간주되기도 하며(이기영, 1987), 가사노동의 무보수적 특성으로 노는 일 혹은 보이지 않는 일로 취급되기도 하며, 사회적업노동이나 국민경제에 기초가 되는 일이라고는 인식되지 않는 경향도 있다(손덕수, 1985).

주부들이 가사노동을 가치있는 노동으로 인식할 경우, 이러한 인식은 가사노동의 수행을 촉진시키는 인적자원으로 작용하여(이기영, 1987) 가사노동을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하므로 가사노동사회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취업주부인 경우에도 가사노동을 직접 수행하도록 작용하여 시간제약을 더욱 더 느끼거나 자신의 가사노동수행에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어 역할갈등을 더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사노동에 대한 의욕에 영향을 주어 가사노동을 보다 쉽게 느끼며 가정생활 자체에 만족을 느낄 수도 있다.

반면에 가사노동을 반복적이고 신체적 요소를 많

이 요구하는 것 등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인식한다면, 취업주부의 이중역할에서 야기되는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회화된 상품과 용역으로 대체하거나 가사노동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조운경, 1988) 자신들이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인식이나 가족원들의 상반된 기대 때문에 갈등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부들은 대부분이 가사노동가치를 높게 인식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한 연구결과들(장명옥, 1976; 임정빈·김명희, 1984; 이기영, 1987; 김성희, 1989; 문숙재, 1991)이 있는가 하면 가사노동가치를 낮게 인식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한 연구결과들(문숙재, 1980; 정충량·이효재, 1970; 서창원, 1984)도 있다. 또 취업주부가 일반주부들이나 남편보다 가사노동가치를 낮게 인식한다는 연구들(박미금, 1984; 조운경, 1988)이 있는 반면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김외숙, 1981)도 있다. 이와 같이 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정도는 연구에 따라 일관성이 없다.

또, 주부들이 가사노동가치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도 몇가지 차원으로 살펴보면 높게만 평가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성희, 1989). 즉, 가정일을 충실히 함으로써 자기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한 주부가 전체의 37.6%에 지나지 않고(문숙재, 1980) 주부자신의 자아실현적 측면과 관련된 개인적 차원에서의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주부의 54.8%가 부정한다(김성희, 1989) 연구결과들을 볼 때 가사노동에 관한 가치는 주부 개인의 자아실현과 관련된 개인적 측면에서는 낮게 평가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역할대안으로서의 취업기회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부들은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의 역할을 합리화시킬 것이므로(김성희, 1989) 주부들은 불만족스럽더라도 그들의 역할에 적응하게 되고 객관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는지는 질문을 받으면 긍정적으로 대답하게 되는 것(André, 1987)과 질문지법에서는 주부들이 가

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층면접법에서는 가사노동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가치에 대해 인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문숙재, 1991) 등을 볼 때 가사노동의 개인적·가정적·사회적 측면에 대한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인식의 평가결과는 주부자신의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 일로서 가사노동에 대해 가지는 가치인식정도를 잘 반영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대상이 취업주부일 때는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자신의 직업노동과 직접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가정일도 충실히 함으로써 자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집안일도 직장일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지 등, 자아실현과 관련시킨 개인적 차원의 항목만으로 한정하여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자신의 자아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로서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의 수준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간제약지각

시간제약은 본질상 절약·저축할 수 없고, 생산적이든 비생산적이든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 사용해서 버리는 연속체인 시간차원의 특성과 한 개인에게 부여된 과중한 역할부담에 의해 유발된다. 즉, 시간제약이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에너지와 시간의 총요구가 너무 커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없는 상태로 특히 시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이승미, 1989).

취업주부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등 이중역할수행의 부담으로 항상 시간이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취업주부자신이 수행해야 할 가사노동은 많고 취업으로 인해 절대적인 가사노동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데 시간제약을 느끼며 또 이러한 객관적인 시간의 부족에 기인하는 주부 스스로 바쁘다거나 서둘러야 한다는 등의 느낌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시간제약을 지각한다.

전문직취업주부는 비전문직취업주부나 비취업주부보다 가사조력원에게 자신이 수행해야 할 가사노동의 양을 분담하므로써 취업으로 인한 시간제약을

해소하고(이승미, 1989), 가사노동시간 소비량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으나 주로 신체적인 가사영역을 타인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사노동수행표준이 높고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이나 기대가 더 높은 이들에게는 질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의 가사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하여 이들의 총가사노동시간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한경미, 1989) 따라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자신의 기대만큼 자녀양육영역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전문직취업주부는 상대적으로 심리적시간제약을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다(장윤옥, 1991).

4. 역할갈등

역할이란 어떠한 지위에 있는 각 개인에게 맡겨진 행동규준으로, 개인이 어떤 지위를 차지할 때 그 지위에 주어지는 권리·의무관계를 말하며, 갈등이란 둘내지 둘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여 해결에 곤란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유영주, 1984).

갈등은 한가지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 또 다른 상황에 순응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을 뜻하는 제약(pressure)이 두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동시에 일어날 때 생긴다(Greenhaus와 Beutell, 1985).

역할갈등이란 두가지 이상의 역할요구 혹은 책임간의 갈등이나 모순을 말하며(Berkowitz와 Perkins, 1984), 한 개인이 다양한 역할 때문에 상반되는 기대들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일어난다(Kahn, Wolfe, Quinn과 Snoek, 1964).

Sieber(1974)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기대에 대한 불일치를 역할갈등이라고 하고 시간에 따라 부여된 압박감(constraints)을 역할과중(overload)으로 정의한 반면, Goode(1973)는 동시에 일어나는 다양한 역할의무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을 역할긴장(role strain)이라고 하였다. 또, Schnittger(1988)는 역할과중(시간)과 갈등(기대) 두 가지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역할긴장이라고 정의를 내렸으나, 역할갈등은 자주 역할긴장과 역할과중의 동의어로 사용되어 왔다고 했다.

한편, 조직심리학자들과 가족사회학자들은 역할긴장을 한가지 역할내에 있는 경쟁적인 기대와 의무의

요구(intra-role conflict: 역할내 갈등)로부터 혹은 경쟁적이지만 변동하는 역할들(inter-role conflict: 역할간 갈등)에서 생길 수 있는 제약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제약과 역할갈등과의 관계를 연구해 왔으나, 조직심리학자들은 역할과중을 역할갈등의 한 차원으로 받아들인 반면에 가족사회학자들은 다양한 역할과 관련된 활동들을 수행할 때 생기는 시간압박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Hiatt, 1986).

Kahn 등(1964)은 “역할의 모호함(ambiguity)”과 “역할갈등”은 서로 다른 두가지 개념이지만 각각 역할긴장을 측정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역할의 모호함”은 ① 역할과 관련된 기대 ② 알려진 역할기대를 충족시키는 방법 ③ 역할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정보가 부족한 정도이며, “역할갈등”은 ① 역할내 갈등(한 역할내에 있는 양립할 수 없는 기대들) ② 역할간 갈등(서로 다른 역할에서 발생하는 역할계약) ③ 역할과중(모든 역할행동이 이론적으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여러가지 역할행동을 역할담당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기대로부터 발생하는 제약)을 포함하는 한가지 역할에 관련된 기대들간의 부조화이다.

Nye(1976)는 가족내에 있는 역할을 8가지(사회화, 자녀양육, 부양자, 가정관리자, 치료사, 性的역할, 친척관계 및 오락적 역할)로 규정하고, 역할긴장은 각 개인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해 괴로운 정도라고 정의 내리면서, 역할긴장의 근원을 ① 두사람 혹은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역할에 대한 적절한 행동에 관하여 기대감이 일치하지 않는 것 ② 역할규정의 결핍 ③ 역할분담에 대한 의견 불일치 ④ 역할 관할권에 대한 갈등으로 규정했다.

5.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시간제약과 역할갈등

취업한 기혼여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주부의 시간분배, 가사노동의 분담, 생활양식의 변화, 역할갈등 등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가족과의 관계나 결혼 만족도, 어린자녀가 있을 경우의 역할갈등이나 극복전략을 중심으로 행해

져 왔다(김순옥, 1972; 임정빈·정혜정, 1986; 김현정, 1988).

최근에, 역할갈등의 한 구성요소로서 종종 시간제약을 포함한 취업이혼여성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들은 있었지만(전영자, 1991; 유가효·박혜인·조희금·박충선, 1992) 취업주부가 가족생활주기의 각 단계를 지나면서 경험할 시간제약지각과 각 영역에서의 역할갈등정도, 그리고 그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극복전략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극히 적다(구혜령, 1991; 최자령, 1991; 김재경·문숙재, 1992; Marcus, 1984; Schnittger, 1988). 또 이것에 관한 연구들도 연구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가족생활주기단계의 수나 기준이 서로 다르고, 전문직취업주부의 시간제약정도와 역할갈등정도를 구체적 영역별로 검토한 연구가 거의 없어 일관성 있는 이론을 도출해 내기가 어렵지만 이들 연구의 일부분들이나 종합해 보면, 우선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직주부의 시간제약지각정도를 조사한 연구(장운옥, 1991)에서 가족생활주기 I 단계인 가정형성기의 주부와 VI 단계인 대학교육기의 주부가 다른 단계의 주부보다 심리적시간제약과 가족돌보기영역에서의 시간제약을 가장 적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녀가 아주 어리거나, 대학교육기에 들어설 정도로까지 성장한 경우이거나 간에, 영·유아기부터 중·고등교육기까지의 자녀가 있는 교직주부는 일상적·비일상적 가사노동영역에서 시간제약을 느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또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보살핌 등 가족돌보기가사노동영역에서 시간의 부족함을 느껴서 항상 바쁘거나 시간에 쫓기는 듯한 기분등으로 시간에 대한 제약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또 가정형성기의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첫 자녀의 출산전에는 부부들이 보통 가사노동분담을 더 똑같이 하며 특히 맞벌이·전문직부부(dual-career)는 자녀가 없는 I 단계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가지지 않으므로 배우자나 전문직역할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진다는 연구결과(Schnittger, 1988)와 일치한다.

가족생활주기의 II 단계인 영·유아기는 가장 많은 가사노동시간을 소비하는 시기이며 III 단계인 취학전

아동기로 갈수록 계속 감소하기는 하나 IV 단계인 초등교육기가 될 때까지 소가족생활주기를 통하여 가장 높은 시간수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막내자녀의 연령은 가사노동시간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이며(노미혜, 1987) 주부의 총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지만(한경미, 1989) 교직주부의 시간제약지각정도에는 영·유아기 집단과 취학전아동기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는 취업주부의 경우 영·유아기집단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가정고용인 등 가사조력자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취학전아동기의 취업주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시간과 큰 차이가 없게 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장운옥, 1991).

한편, 많은 연구들(Poloma, 1972; Akabas, 1984; Kelly와 Voydanoff, 1985; Voydanoff, 1985; Schnittger, 1988)이 가족생활주기의 영·유아기 및 취학전아동기동안에는 직업과 가족역할간에 갈등이 가장 크며 이들 단계의 부부들은 두 사람의 전문직, 부부관계와 부모의 책임을 조정해야만 한다고 했으나, 이 단계의 취업주부가 출산기간동안 취업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 남편보다 여러가지 요인들을 더 신중하게 고려하며(Waite, 1980),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취업여성일수록 결혼 또는 첫자녀 출생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노미혜, 1987).

이처럼 취학전자녀가 있는 취업주부는 자신의 남편보다, 또 다른 연령층의 자녀가 있는 취업주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역할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Keith와 Schafer, 1980; Marcus, 1984; Bird와 Ford, 1985). 특히 맞벌이·전문직주부들은 이 시기에 부가된 부모역할과 전문직역할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Bird와 Ford, 1985), 부모의 역할과 직업역할이 부부역할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Nicola, 1980). 이 때문에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는 가장 많은 가사노동시간이 요구되고 시간제약지각과 역할갈등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취학전자녀를 가진 취업주부에 초점을 둔 것이 많다.

가족생활주기 IV 단계인 초등교육기에는 자녀들의 숙제 봐주기, PTA모임, 또 다른 학교활동 의무로 이미 “빡빡한” 스케줄을 더욱 더 복잡하게 하며, 부모

들의 연령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전문직 정체상태를 유지하거나 매우 바쁜 전문직의 확립단계를 지속하게 된다(Hiestand, 1971).

이와 같이 이 시기는 자녀의 학교생활지도가 부가되므로 취업주부는 또 다른 형태로 시간제약을 지각하고 특히 부모역할에 갈등을 느낀다. 이러한 이유로 자녀가 다소 성장하여도 이 단계의 취업주부의 시간 제약지각 정도는 그 前단계와 유사하며 시간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른 단계의 주부들보다 편의품 및 가족돌보기관련서비스를 유의하게 더 많이 이용한다(장윤옥, 1991).

가정생활주기 V단계인 중·고등교육기는 자녀들이 사춘기에 도달하게 되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유와 책임의 균형"에 대해 충고를 해야 하는 시기이며(Duvall과 Miller, 1985) 부모로서의 시간요구는 줄어들지만 상담과 인내가 더 필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그리고 자기평가를 해야 하는 중년시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의 지지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즉, 훌륭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심리적으로 자녀들과의 접촉을 지속하는 것이 중년시기와 그 이후의 가족생활에 만족하고 또 가족생활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하며, 가족생활은 남편과 아내간의 상호작용에 좀 더 관련된다.

이 단계는 자녀교육을 위한 비용 때문에 계속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하려고 애쓰는 시기이며(Timmer, 1981),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과외지도를 고려하거나 실제로 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시기이다(옥선화 등, 1991). 전형적으로 이 시기의 취업주부들은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의 일부분을 남편이나 성장한 가장 큰 자녀에게 위임하고자 하며 복잡한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도 더 많이 위임할 수도 있다(Schnittger, 1988)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단계의 취업주부는 자녀들의 학교생활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신의 평일의 수면시간과 휴일의 여가시간을 줄여서 시간제약을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장윤옥, 1991). 이와 같이 이 시기에는 자녀교육문제를 중심으로 가족생활이 운영되기 때문에 취업주부는 또 다

른 유형의 시간제약과 역할갈등을 경험한다.

가족생활주기 VI단계인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맞벌이-전문직 부부들은 다양한 역할들을 계속 지속하면서 부부 두 사람만 남게 될 때를 준비하고 부부관계를 재조명하는 시기이다. 또, 이 단계에서 맞벌이-전문직 부부는 전문직에서의 역할긴장이 낮아지는데, 그것은 아마도 전문직에서의 위치가 확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경쟁적이 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또 다른 책임을 더 적게 맡을 수 있는 더 많은 자유가 있으므로 어떻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한 여가시간을 현실화할 수 있고, 부가적인 자원이나 조력인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Schnittger, 1988).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이 단계는 자녀의 교육비가 더욱 많이 요구되고, 노부모에 대한 부양과 자식의 장래를 위한 준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노후도 준비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압박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 특히 자녀의 배우자 선택문제나 우리의 현실에서 부모가 많이 부담해야 하는 자녀의 결혼비용문제 등으로 가족내 문제, 개인적 문제, 그리고 세대간 문제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적응해야 하는 시기이므로(옥선화 등, 1991) 취업주부로서는 前단계와는 또 다른 영역에서 시간제약과 역할갈등을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

6. 가사노동가치인식에 따른 시간제약지각과 역할갈등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수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평가한 연구는 극히 적으며(김성희, 1989; 문숙재, 1991; 이정우·이은주, 1992), 가정관리자의 역할, 가사노동부담, 가사노동수행에 대한 만족감이나 태도 등을 포함한 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조사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김외숙, 1981; 이미선, 1984; 임정빈·김명희, 1984; 박미금, 1984; 박인경, 1986; 김연화·이정우, 1987).

따라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이 높으면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고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감이나 태도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임정빈·김명희(1984)는 대부분의 주부들이 가사노동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가사노동역할수행에 있어서도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반응이 높아서 대체로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박인경(1986)도 주부의 전반적인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은 약간 긍정적이고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과 가사노동만족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했다. 그러나 학력이나 생활수준이 높은 주부일수록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일과 보람을 위해 직장을 갖고 가사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임정빈·김명희, 1984), 취업주부의 경우도 노동적인 영역은 감소시키고 관리적인 측면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생활시간분배를 조정하고자 한다(Strober와 Weinberg, 1980).

한편, 취업과 가정관리자역할에 대한 만족감에 있어서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간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들(Feree, 1976; Wright, 1978; 박미금, 1984)은 일관성 없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사노동이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과업들,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술을 요구하는 과업들, 그리고 시간, 노력,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들을 요구하는 과업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한다 하더라도 가사노동수행이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평가를 일관성있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취업주부의 경우 아무리 가사노동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가사노동수행에 만족감을 얻는다 할지라도 고정적인 취업노동을 하고 남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수행에서 초래되는 시간제약과 역할갈등을 피할 수 없으므로 어떤 유형 혹은 어떤 영역의 가사노동에 대한 자신의 가치인식수준에 따라 지각하는 시간제약과 역할갈등정도가 다르고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선택하는 시간관리전략이나 역할갈등 극복전략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취업주부는 시간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사노동시간을 줄이는 한 방안으로 자신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수준에 따라 가사노동의 일부분 혹은 신체적가사노동영역등을 일차적 가족구성원인

남편과 자녀, 그리고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분담시키고자 한다.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연구는 부인의 취업으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많아진다는 연구결과(윤명희·임정빈, 1985; 김외숙·서창원, 1986; 송혜림, 1988)와 부인의 취업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와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들(이정수, 1984; 이연주, 1984; Sanik, 1981; Nickols와 Fox, 1983)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역할수행이 적고(이연주, 1984) 전문직취업주부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협력이 가장 적은 것(송혜림, 1988)처럼, 전문직취업주부들의 남편들은 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지는 않으며(Yogev, 1982), 맞벌이-전문직 부부도 전통적인 가족유형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록 배우자 각자가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주부는 가정관리자의 역할로, 대부분의 남편들은 부양자로 동일시 되어 주부는 여전히 가사(가사조력을 감독), 그리고 자녀들을 책임지고, 남편은 혹시 도와더라도, 완전히 그리고 동등하게 이 일들을 분담하지는 않기 때문에(Edgell, 1980; Sekaran, 1986) 전문직취업주부들은 종종 그들의 휴식시간을 아이들을 돌보고 가사를 수행하는데 보낸다(Hertz, 1986).

이처럼 전문직취업주부들은 남편들에게 가사노동분담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과중한 역할부담 때문에 시간제약과 갈등을 느끼지만 반대로 아내의 역할과중을 들어주기 위해 남편이 도와주는 경우에도 자녀양육이 전통적으로 어머니역할로 간주되고 있는 경향 때문에 오히려 책임감과 역할갈등을 느낀다(Keith와 Schafer, 1980).

그리하여, 자녀양육을 분담해 줄 다른 가족원이 없는 경우, 전문직취업주부가 자녀양육에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남편의 지원을 원하기보다 자신의 여가시간이나 사회활동을 줄이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 잘 용납이 되므로(Schnittger, 1988) 전문직취업주부는 남편에게 가사노동을 분담하기보다는 다른 가사조력인들에게 가사노동을 분담하거나 수면시간과 여가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부족한 가사노동시간을 보완한다(이승미, 1989).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부가 취업할 경우 조모가 가사노동을 많이 분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한경미, 1989) 조모의 조력은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을 경감시켜 준다. 특히 직업적 지위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취업주부일수록 일반가사노동에 비해서 자녀양육면에서 조모가 더 많이 돕는 경향이 있다(유영주, 1977; 전옥경, 1979; 이연주, 1984).

그러나 시부모나 친정부모 등과 동거하는 경우 자녀양육상의 책임은 어느정도 전가할 수 있으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의 전가로 모성역할에 불충실하다고 느낄 수 있어 오히려 갈등을 느끼며(임정빈·정혜경, 1986) 어머니역할에서 실패했다고 지각할 때 느끼는 죄의식과 분노가 전문직취업주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Johnson과 Johnson, 1980) 연구결과들처럼 전문직취업주부는 특히 자녀양육에 관한 가사노동을 타인에게 분담시킬 때 부모역할영역에서 갈등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다.

취업주부는 시간제약을 해소하는 또 다른 방안인 사회화된 제품이나 용역의 이용을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수준에 따라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하거나 그것의 이용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한경선, 1986) 규격화·획일화된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으로 각 가정의 독자성이 없어지며 가정내의 가사노동에서 습득된 생활기술이나 가정생활문화의 전달기회가 감소되고 가족의 단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또한 가공식품의 과다이용으로 인해 위생·영양이 문제시되고 있는 점(문숙재·채옥희, 1986)을 우려하는 전문직취업주부일 경우 시간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것들을 이용은 하지만 이러한 해결방안에 대해 또다른 죄책감과 갈등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취업주부는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에 따라 가사노동수행표준을 유연하게 혹은 엄격하게 설정하는데 이것에 따라 주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양과 질은 차이를 보인다. 가사노동수행표준이 높을수록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기 때문에(한경미, 1989) 취업주부는 직업지위에 관계없이 가사노동의 수행표준을 낮춤으로서 취업에 의한 시간제약을 경감시킨다(이승미, 1989). 이와같은 가사노동수행표준은 설정된 표준의 수준까지 수행해 냈을

때는 만족감을 느끼는 자아보상의 근거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죄책감, 걱정스러움을 유발시키는 근거가 된다(한경미, 1989; Bebbington, 1973).

이상과 같이 전문직취업주부가 시간제약이나 역할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다양한 가사노동수행방안을 자신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에 따라 선택·이용할 경우 가사노동시간제약지각이나 심리적시간제약지각, 그리고 각 역할영역에 있어서 갈등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7. 연구문제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교직주부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와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이 시간제약지각과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교직주부에 있어서 시간제약지각(심리적, 가사노동시간제약지각)과 역할갈등(개인적, 부부, 부모, 주부역할갈등)에 대해 가족생활주기와 가사노동가치인식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교직주부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시간제약지각과 역할갈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교직주부에 있어서 가사노동가치인식에 따라 시간제약지각과 역할갈등에 차이가 있는가?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대구시내 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가 일상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기혼여교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1991년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6월 24일부터 7월 12일 사이에 행해졌다.

본 조사전에 각 학교별로 기혼여교사의 분포상태를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근무하는 기혼여교사의 수가 비슷한 공·사립중학교 각 6개교, 공·사립고등학교 각 4개교를 선정하여 42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에서 회수된 자료는 364부

였고 응답이 미흡한 자료를 제외한 338부를 최초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나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높은 집단(上집단)과 낮은 집단(下집단)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중앙치(12.35)에 해당되는 자료가 제외되어 329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가사노동가치인식척도

선행연구(문숙재·채옥희, 1986; 김성희, 1989)를 참고로 하여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15문항을 만들어서 요인분석을 한 결과, 김성희(1989)가 사용한 가사노동의 사회적가치척도 중에서 자아실현적 측면과 관련된 개인적 차원의 항목만(1번에서 5번문항까지)으로 묶어진 5문항을 가사노동가치인식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되었고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2$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시간제약의 지각척도

시간제약의 지각척도는 심리적시간제약의 지각척도와 가사노동영역별시간제약의 지각척도를 하위영역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심리적시간제약의 지각척도는 임정빈·정혜정(1986), Reilly(1982)의 연구를 참고로 해서 이승미(1989)가 작성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형 5점 척도를 사용했다. (5), (8)문항은 긍정적 문항으로 역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부의 심리적제약지각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9$ 였다. 가사노동시간제약의 지각척도는 한경미(1989), 송혜림(1988)의 연구를 참고하여 장윤옥(1991)이 작성한 2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에 5점 리커트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0$ 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나 자녀가 없는 경우 그 응답의 모호성을 고려하여 「내가 하지 않는다」의 경우를 첨가하고 분석시에는 1점을 주어 5점 척도에 포함시켰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제약의 지각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역할갈등척도

역할갈등척도로 Berkowitz와 Perkins(1984)가 사용한 역할갈등에 관한 질문내용을 참고로 하면서, 이미 이것을 중심으로 임정빈·정혜정(1986)이 작성한 역할갈등척도문항에서 표현을 다소 수정하여 2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5점 Likert 방식을 적용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2$ 였다.

그리고 척도의 타당도를 구하기 위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임정빈·정혜정(1986)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1문항(5번 문항)은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묶여져서 이를 제외시키고 2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요인에 묶여진 항목의 내용을 검토한 뒤 개인적역할갈등(2, 3, 6, 23, 24, 25, 26번문항), 부부역할갈등(7, 8, 10, 11, 12, 13번문항), 부모역할갈등(4, 18, 19, 20, 21, 22번문항), 주부역할갈등(1, 9, 14, 15, 16, 17번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항목들은 각 하위영역의 역할갈등정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갈등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교직주부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와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이 시간제약지각과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6(가족생활주기단계)×2(가사노동가치인식수준) 요인설계에 의해 자료를 수집한 다음 SPSS* 패키지 program의 MANOVA(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절차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가족생활주기와 가사노동가치인식에 따른 시간제약지각과 역할갈등의 다변인변량분석

가족생활주기(I, II, III, IV, V, VI 단계)와 가사노동가치인식(上, 下)이 시간제약지각(심리적, 가사노동)과 역할갈등(개인적, 부부, 부모, 주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변인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가족생활주기와 가사노동가치인식에 따른 시간제약지각과 역할갈등의 다변인변량분석결과(df=5,317)

EFFECT	WILKS	APPROX.F	HYPOTH.DF	ERROR DF	P
가족생활주기(A)	.79120	2.51244	30	1250.00	.000
가사노동가치인식(B)	.98120	.99659	6	312.00	.428
A × B	.86430	1.54709	30	1250.00	.031

〈표 2〉 가족생활주기와 가사노동가치인식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결과 (df=5,317)

종속변인	HYPOTH.SS	ERROR SS	HYPOTH. MS	ERROR MS	F	P
*심리	263.20807	16570.73378	52.64161	52.27361	1.00704	.414
가사	1405.74568	68572.55689	281.14194	216.31721	1.29971	.264
**개인	104.98684	6475.60527	20.99737	20.42778	1.02788	.401
부부	189.38298	4329.64034	37.87680	13.65817	2.77320	.018
부모	339.87610	5898.40338	67.97522	18.60695	3.65322	.003
주부	249.07288	5888.52531	49.81458	18.57579	2.68169	.022

*시간제약지각(심리적, 가사노동) **역할갈등(개인적, 부부, 부모, 주부)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족생활주기와 가사노동가치인식의 상호작용효과($F=1.54709$, $P<.05$)와 가족생활주기의 주효과($F=2.51244$,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사노동가치인식의 주효과($F=.99659$,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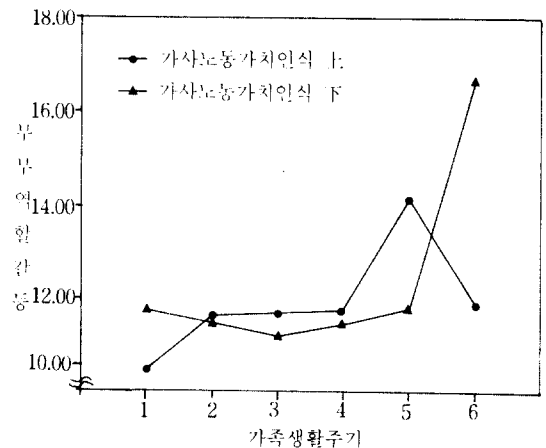
2. 가족생활주기와 가사노동가치인식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가족생활주기와 가사노동가치인식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종속변인인 부부역할갈등, 부모역할갈등, 주부역할갈등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리적시간제약지각, 가사노동시간제약지각, 개인적역할갈등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부역할갈등의 상호작용효과 및 단순주효과 분석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부부역할갈등에 대한 가족생활주기와 가사노동가치인식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부부역할갈등의 상호작용효과

부부역할갈등의 상호작용효과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부부역할갈등의 단순주효과(Simple main effect)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역할갈등의 경우 단순주효과[F(A@B₁)=2.33, F(A@B₂)=4.84,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역할갈등에 있어서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법을 적용한 결과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부부역할갈등에 있어서 중·고등교육기교직주부집단(M=14.15)이 가정형성기교직주부집단(M=10.48)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유아기(M=11.63), 취학전아동기(M=11.71), 초등교육기(M=11.75),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M=11.89)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이 높은 가정형성기의 교직주부는 가사노동을 직접 수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제약을 느낀다 하더라도, 첫 자녀의 출산전에는 남편과 보통 가사노동분담을 더 똑같이 하고 부모의 역할도 없으므로 아내역할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윤명희·임정빈, 1985; Schnittger, 1988) 가사노동수행에서 오는 만족감으로 부부역할갈등정도가 낮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중·고등교육기의 교직주부는 자녀의 성적 및 진학문제로 정신적·경제적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옥선화 등, 1991), 자녀의 학교생활시간에 자신의 생활시간(수면, 여가시간)을 조절해야 하므로 취업주부로서 어려움을 느낀다. 또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식이 높은 주부일수록 사회적 유보수노동에 전념해야 하는 중년기의 남편에게는 아내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Healy, 1982) 남편이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형편이며, 남편으로부터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이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단계의 교직주부의 부부역할갈등정도가 어떤 단계의 주부들보다도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부부역할갈등에 있어서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교직주부집단(M=16.69)이 가정형성기(M=11.74), 영·유아기(M=11.49), 취학전아동기(M=11.19), 초등교육기(M=11.47), 중·고등교육기(M=11.82)교직주부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가족생활주기 I, II, III, IV, V 단계의 교직주부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사노동가치인식의 단순주효과 중에서 B@A₁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B

<표 3> 부부역할갈등의 단순주효과분석결과

종속변인	SOURCE	SS	DF	MS	F
부 부 역 할 갈 등	가족생활주기(A)				
	A@가사노동가치인식 ₁	159.05	5	31.81	2.33*
	A@가사노동가치인식 ₂	330.55	5	66.11	4.84**
	가사노동가치인식(B)				
	B@가족생활주기 I	25.06	1	25.06	1.83
	B@가족생활주기 II	0.58	1	0.58	0.04
	B@가족생활주기 III	4.25	1	4.25	0.31
	B@가족생활주기 IV	0.83	1	0.83	0.06
	B@가족생활주기 V	40.53	1	40.53	2.97
	B@가족생활주기 VI	122.53	1	122.53	8.97**
	WITHIN	4329.64	317	1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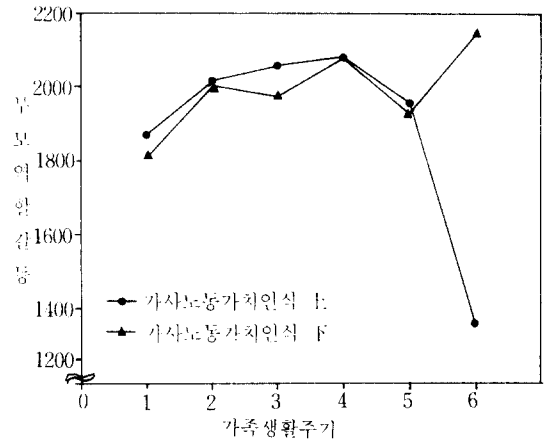
* p< .05, ** p< .01

@ A_{VI})=8.97, $P<.05$] 나머지 단순주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부모역할갈등에 있어서,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교직주부집단에서만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낮은 집단($M=16.69$)이 높은 집단($M=11.89$)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가족생활주기단계에 있어서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교직주부들이 다른 단계의 교직주부들보다 부모역할갈등정도가 더 높았고, 또한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의 교직주부집단 내에서는 가사노동가치인식수준이 낮은 교직주부가 높은 교직주부보다 부모역할갈등정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가사노동가치인식수준이 낮은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의 교직주부집단이 다른 교직주부집단보다 부모역할갈등정도가 가장 높다고 하겠다. 이것은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의 교직주부는 부부의 공동과제였던 자녀들의 진학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계속 직업역할에 전념해야 하고 자녀의 배우자 선택, 자녀의 결혼에 따르는 경제적 압박감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적응문제(옥선화 등, 1991),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심리적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낮은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교직주부일수록 가사노동을 직접 수행하려 하기보다는 성장한 자녀나 가사조력인에게 위임하기도 하고, 가사노동수행표준을 낮추거나 사회화된 상품으로 대체하려 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시간제약의 부담은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여성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인식과 남편의 상반된 기대로 죄책감이나 부모역할갈등이 가중될 수 있고(임정빈·정혜정, 1986), 또 연령이 많고 가사노동의 수행표준이 낮은 취업주부일수록 시간, 역할, 인간관계, 경제갈등을 느끼는 빈도가 높게 나타나기(이연숙 등, 1991)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부모역할갈등의 상호작용효과 및 단순주효과분석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부모역할갈등에 대한 가족생활주기와 가사노동가치인식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부모역할갈등의 상호작용효과

부모역할갈등의 상호작용효과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부모역할갈등의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역할갈등에 있어서, 단순주효과 [$F(A@B) = 4.53,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순주효과 $A@B$ 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높은 집단의 경우 부모역할갈등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단순주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단순주효과 $A@B$ 에 Scheffé의 사후검증법을 적용한 결과 부모역할갈등에 있어서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높은 집단에서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교직주부집단($M=13.67$)과 가정형성기($M=18.70$), 영·유아기($M=20.17$), 취학전 아동기($M=20.61$), 초등학교기($M=20.88$), 중·고등학교기($M=19.55$)교직주부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표 4〉 부모역할갈등의 단순주효과분석결과

종속변인	SOURCE	SS	DF	MS	F
부 모 역 할 갈 등	가족생활주기(A)				
	A@가사노동가치인식 _상	421.24	5	84.24	4.53*
	A@가사노동가치인식 _하	166.85	5	33.37	1.79
	가사노동가치인식(B)				
	B@가족생활주기Ⅰ	5.49	1	5.49	0.30
	B@가족생활주기Ⅱ	0.58	1	0.58	0.03
	B@가족생활주기Ⅲ	11.65	1	11.65	0.63
	B@가족생활주기Ⅳ	0.09	1	0.09	0.01
	B@가족생활주기Ⅴ	0.55	1	0.55	0.03
	B@가족생활주기Ⅵ	322.73	1	322.73	17.34**
WITHIN	5898.40	317	18.61		

* p<.05 ** p<.01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가정형성기, 영·유아기, 취학전아동기, 초등교육기, 중·고등교육기교직주부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문직취업주부는 일반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이나 기대수준이 높은 편인데 특히 가사노동가치인식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더욱 더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보살핌등에 시간의 부족함을 느끼고 전통적인 자녀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낀다(임정빈·정혜정, 1986; Johnson과 Johnson, 1980)는 연구결과들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영·유아기 및 취학전아동기교직주부는 자녀의 양육을 타인에게 위임하게 되므로 자녀의 지적·정서적발달에 장애가 있지 않을까 하는 등의 불안감 때문에, 중·고등교육기교직주부는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및 교육제도, 그리고 특유의 교육열등에서 기인되는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더욱 더 부모역할갈등을 크게 느끼는 반면에,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교직주부는 그 前단계보다 자녀에 대한 심리적·가사노동시간요구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취업주부가 가질 수 있는 부모역할갈등이 낮아진다고 하겠다. 자녀가 없는 가정형성기교직주부가 대학교육기교직주부보다 부모역할갈등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 생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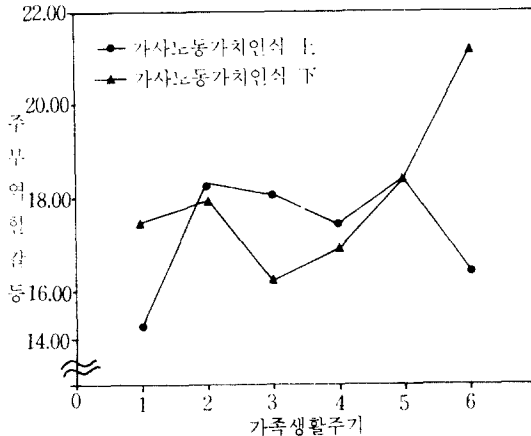
있는 부모역할갈등을 자신의 입장에서 표현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가사노동 가치인식의 단순주효과중에서 B@A_{VI}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F(B@A_{VI})=17.34, P<.05] 나머지 단순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 2〉에 나타난 것처럼 부모역할갈등에 있어서,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교직주부집단의 경우에만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낮은 집단(M=21.46)이 높은 집단(M=13.67)에 비해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가족생활주기에 있어서는 가사노동가치인식에 따른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에 있는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낮은 취업주부일수록 역할대행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육기자녀에게 더 많은 가사노동을 분담하게 되고 이것이 자녀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자녀의 장래를 위한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성장한 자녀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여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가사노동수행에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높은 취업주부보다 부모역할갈등이 더 높게 나타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5. 주부역할갈등의 상호작용효과 및 단순주효과분석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주부역할갈등에 대한 가족생활주기와 가사노동가치인식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3>와 같다.



(그림 3) 주부역할갈등의 상호작용효과

주부역할갈등의 상호작용효과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주부역할갈등의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부역할갈등에 있어서 단순주효과 A@B₁ (F=2.71,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순주효과 A@B₂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낮은 집단의 경우 주부역할갈등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나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단순주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단순주효과 A@B₁에 Scheffé의 사후검증법을 적용한 결과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낮은 집단에서 가정형성기(M=17.47), 영·유아기(M=17.93), 취학전아동기(M=16.25), 초등교육기(M=16.89)교직주부집단이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교직주부집단(M=21.15)에 비해 주부역할갈등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으나 중·고등교육기집단(M=18.36)과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교직주부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가정형성기, 영·유아기, 취학전아동기, 초등교육기, 중·고등교육기교직주부집단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젊은 교직주부일수록 주부의 역할을 전통적인 여성의 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사노동량이 많지 않은 가정형성기교직주부도 가사노동을 남편과 동등하게 분담하려 하고 가사노동수행의 미숙함까지도 경험부족으로 인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므로서, 영·유아기, 취학전아동기교직주부는 전문직취업주부일수록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가정고용인에게 가사노

<표 5> 주부역할갈등의 단순주효과분석결과

종속변인	SOURCE	SS	DF	MS	F
주부역할갈등	가족생활주기(A)				
	A@가사노동가치인식 _上	197.81	5	39.56	2.13
	A@가사노동가치인식 _下	252.01	5	50.40	2.71*
	가사노동가치인식(B)				
	B@가족생활주기 I	74.32	1	74.32	4.00*
	B@가족생활주기 II	3.92	1	3.92	0.21
	B@가족생활주기 III	52.16	1	52.16	2.81
	B@가족생활주기 IV	2.98	1	2.98	0.16
	B@가족생활주기 V	0.02	1	0.02	0.01
	B@가족생활주기 VI	118.03	1	118.03	6.35*
	WITHIN		5888.53	317	18.58

* p<.05

동분담을 기대한다고 한 연구결과들(이연주, 1984; 이승미, 1989)처럼 이중역할에서 야기되는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편의품 및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거나 가사조력인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음으로서(장윤옥, 1991), 그리고 초등교육기교직주부는 자녀의 학교생활지도와 같은 지적·정서적돌보기문제를 더 중요시 여겨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분배하고자 편의식품을 더 많이 이용하거나 가사노동수행표준을 낮추므로써 취업주부의 시간제약지각과 가사노동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가사노동가치인식수준이 낮은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주부역할수행에 대해 갈등을 크게 느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교직주부는 가사노동분담을 가족원이나 타인에게 많이 위임하거나 가정기기를 많이 이용하여 시간제약지각과 가사노동부담은 완화시키고 있지만(장윤옥, 1991), 이러한 가정관리자 역할이 장년층주부들의 전통적인 가족가치관과는 모순된다고 여긴다면(임정빈·정혜정, 1986) 이들의 주부역할갈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집에서 이와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가사노동가치인식의 단순주효과 중에서 $B @ A_1(F=4.00, P<.05)$, $B @ A_{VI}(F=6.35, P<.05)$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단순주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 나타난 것처럼 가정형성기교직주부집단의 경우,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낮은 집단($M=17.47$)이 높은 집단($M=15.29$)보다 주부역할갈등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교직주부집단의 경우에도 역시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낮은 집단($M=21.15$)이 높은 집단($M=16.44$)에 비해 주부역할갈등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형성기와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 교직주부집단에서는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주부역할갈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양육의 부담이 적은 두 집단에서는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높을 경우 가사노동을 직접 수행하는 것에 강한 책임의식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직장생활로 시간제약의 느낌을 느끼더라도 가사노동수행에 소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높게 설정한 가사

노동수행표준의 수준까지 달성하려고 노력할 것이므로 이것이 가족원들로부터의 인정과 자아보상의 근거가 되어 주부역할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주부역할갈등도 더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에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낮은 경우 가사노동량이 적거나 부모역할의 부담이 적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수행표준을 낮추거나 가사노동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가사노동부담과 시간제약지각을 완화시키려 하는 이들의 주부로서의 역할수행이 가족원의 기대나 전통적인 가치관과 부합되지 않을 때 오히려 죄책감을 가지게 되거나 괴로와하는(한경미, 1989; Bebbington, 1973) 등 주부역할갈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가족생활주기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므로 가족생활주기의 상세한 주효과 해석은 생략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와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교직주부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와 가사노동가치인식의 상호작용효과가 부부역할갈등, 부모역할갈등, 주부역할갈등에서 유의하게 있었으나 심리적 시간제약지각, 가사노동시간제약지각, 개인적 역할갈등에서는 없었다. 또,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시간제약지각과 역할갈등에 차이가 있었으나 가사노동가치인식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또, 교직주부에 있어서 가사노동가치인식에 따라 시간제약지각과 역할갈등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가족생활주기에 따라서는 시간제약지각과 역할갈등에 차이가 있었다.

이것을 구체적 살펴보면,

첫째, 부부역할갈등에 있어서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중·고등교육기교직주부집단이 가정형성기교직주부집단에 비해 부부역할갈등정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교직주부집단이 가정형성기, 영·유아기, 취학전아동기, 초등교육기교직주부집단보다 부부역할갈등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교직주부집단에서는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부부역할갈등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역할갈등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가사노동가치인식수준이 낮은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교직주부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역할갈등에 있어서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가정형성기, 영·유아기, 취학전 아동기, 초등교육기교직주부집단이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교직주부집단보다 부모역할갈등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교직주부집단에서는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부모역할갈등정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부모역할갈등정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가사노동가치인식수준이 높은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교직주부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주부역할갈등에 있어서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가정형성기, 영·유아기, 취학전 아동기, 중·고등교육기교직주부집단이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교직주부집단보다 주부역할갈등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또, 가정형성기교직주부집단과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교직주부집단에서는 가사노동가치인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주부역할갈등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부역할갈등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가사노동가치인식수준이 낮은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교직주부집단이고, 주부역할갈등정도가 낮은 집단은 가사노동가치인식수준이 높은 가정형성기교직주부집단과 가사노동가치인식수준이 높은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교직주부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와 결론에는 다소의 한계점이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존의 척도가 전반적인 취업주부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뢰도나 타당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 직종의 전문직취업주부에게 적합한 특유의 척도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본 연구결과의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각 변인에 대한 그리고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취업주부에 관한 기초연구가 사전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취업주부의 시간제약지각과 역할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 및 상황에 관한 연구등 취업주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각년호). 경제활동인구연보.
- 2) 교육부 중앙교육 평가원(1983. 1991). 교육통계연보.
- 3) 구혜령(1991). 전문직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4)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29(1).
- 5) 김성희(1989).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평가 비교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6) 김순옥(1972). 부인의 취업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7) 김연화·이정우(1987). 도시주부의 가치관과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정관리학회지 5(1).
- 8) 김외숙(1981).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I). 대한가정학회지 19(4).
- 9) 김외숙·서창원(1986).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5.
- 10) 김재경·문숙재(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 11) 김현정(1988). 자녀를 둔 여교사의 역할갈등.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 12) 노미혜(1987). 여성의 취업실태조사—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5(1).
- 13) 문숙재(1980).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의식과 실태조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37.
- 14) 문숙재·채옥희(1986). 가사노동. 서울: 신광출판사.

- 15) 문숙재(1991).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 16) 박미금(1984). 도시 저임금 취업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인식과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17) 박인경(1986). 도시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18) 서창원(1984). 주부의 가사노동 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9) 손덕수(1985). 가사노동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한국여성과 일: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 20) 송혜림(1988). 남편의 가사노동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21) 옥선화(1980). 한국가정의 가족생활주기에 관한 고찰. 성심여대 생활과학 연구논집 1(1).
- 22) 옥선화·이기춘·이기영·이순형·공인숙(1991).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40대 중산층부부가 지각한 가정생활의 제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29(2).
- 23) 유가효·박혜인·조희금·박충선(1992).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Ⅱ). 대한가정학회지 30(1).
- 24) 유영주(1977).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수행상의 문제. 서울대 가정대학 논문집 2.
- 25) 유영주(1984).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 26) 윤병희·임정빈(1985). 도시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 27) 이경희(198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사회관제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28) 이기영(1982).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의의에 관한 소고. 고려대 사대논집 7.
- 29)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30) 이미선(1984). 주부의 자아존중감과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31)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32) 이연숙·이순형·류가효·조재순(1991). 기혼취업여성이 지각하는 가정·직업생활갈등 및 부적응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 33) 이연주(1984).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정내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4).
- 34) 이원표(1983). 기혼여교사의 이중역할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35) 이정수(1984).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 36) 이정우·이은주(1992).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관련변인 고찰-전문직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1).
- 37) 임정빈·김명희(1984).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주부의 의식조사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 38) 임정빈·정혜정(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 39) 장명옥(1976). 우리나라 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에 관한 연구. 가정관리학연구(장명옥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 40) 장명옥(1985).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41) 장윤옥(1991). 교직주부의 시간제약지각과 가사노동수행방안. 효성여대 여성문제연구 18.
- 42) 전영자(1991). 전문직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 43) 전옥경(1979). 취업여성가족과 비취업여성가족의 가사역할 분담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44) 정충량·이효재(1970). 도시주부생활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6.
- 45) 조윤경(1988).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관한 연구-성역할 태도 및 가사노동가치인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46) 최자령(1991). 취업주부의 역할관리전략과 역할갈등수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47) 한경미(1989).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 48) 한경선(1986). 한국가정의 일상식의 구조와 그

- 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49) André Rae 저. 한국여성개발원 역(1987). 가정주부.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50) Akabas, S.H.(1984). Workers are parents, too. *Child Welfare* 63, 387~399.
- 51) Albrecht, S.L., Bahr, H.M. & Chadwick, B.A. (1979). Changing family and sex roles: An assessment of age differenc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41~50.
- 52) Bebbington, A.C.(1973). The function of stres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dual-career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5, 530~537.
- 53) Berk, S.F.(1976).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Patterns and determina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
- 54) Berkowitz, A.D. & Perkins, H.W.(1984). Stress among farm women: Work and family as interacting syst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161~166.
- 55) Bird, G.W. & Ford, R.(1985). Sources of role strain among dual-career coupl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 187~194.
- 56) Degler, C.N.(1980). At odds: Women and the family in America from the revolution to the pres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57) Duvall, E.M.(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5th ed. Philadelphia: J.B. Lippincott.
- 58) Duvall, E.M. & Miller, F.(1985). *Family development*. 6th ed. Philadelphia: J. B. Lippincott.
- 59) Edgell, S.(1980). Middle-class couples: A study of segregation, domination, and inequality in marriage. London: Allen & Unwin.
- 60) Ferree, M.(1976). Working class jobs: Household work and paid work as sources of satisfaction. *Social Problems* 23, 431~441.
- 61) Glick, P.(1977). Updating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5~13.
- 62) Goode, W.J.(1973). A theory of role strain. In W.J. Goode(Ed.). *Explorations in social theory* (pp. 97~12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63) Greenhaus, J. & Beutell, N.(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In B. Miller & D. Olson(Eds.). *Family studies review yearbook*.(pp. 299~319). Beverly Hills: Sage.
- 64) Hall, D.T. & Gordon, F.E.(1973). Career choices of married women: Effects of conflict, role behavior, and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8, 42~48.
- 65) Healy, C.(1982). *Career development: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tages*. Boston: Allyn and Bacon, Inc.
- 66) Hertz, R.(1986). *More equal than others: Women and men in dual-career marriages*. Berkeley, CA: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67) Hiatt, A.R.(1986). Career and career wives' preferences for the use of time and use of strategies for coping with time constrai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Greensboro.
- 68) Hiestand, D.(1971). *Changing careers after thirty-five: New horizons through professional and graduate stud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69) Johnson, C.L. & Johnson, F.A.(1980). Parenthood, marriage, and careers: Situational constraints and role strain. In F. Pepitone-Rockwell (Ed.). *Dual career couples*(pp. 143~162). Beverly Hills: Sage.
- 70) Kahn, R.L., Wolfe, D.M., Quinn, R.D. & Snoek, J.D.(1964). *Organizational stress: Studies in role conflict and ambigu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 71) Keith, P. & Schafer, R.(1980). Role strain and depression in two-job families. *Family Relations* 29, 483~488.
- 72) Kelly, R. & Voydanoff, P.(1985). Work/family role strain among employed parents. *Family Relations* 34, 367~374.
- 73) Marcus, S.(1984). The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and family life cycle stage on

- women's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 Texas State University, Denton, Texas.
- 74) Mattessich, P. & Hill, R.(1987). Life cycle and family development. In M. Sussman & S. Steinnetz(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pp. 437~469). New York: Plenum Press.
- 75) Nickols, S.Y. & Fox, K.D.(1983). Buying time and saving time: Strategies for managing household produ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Sep.).
- 76) Nicola, J.S.(1980). Career and family roles of dual-career couples: Women in academia and their husban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 77) Nye, F.I.(1976). Role structure and analysis of the family. Beverly Hills: Sage.
- 78) Pines, A. & Kafry, D.(1981). Tedium in the life and work of professional women as compared with men. *Sex Role* 7, 963~977.
- 79) Pleck, J.H.(1977). The work-family role system. *Social Problems* 24, 411~427.
- 80) Poloma, M.(1972). Role conflict and the married professional women. In C. Safilos-Rothschild (Ed.). *Toward a sociology of women*(pp. 187~197). Lexington, Mass: Xerox.
- 81) Poloma, M., Pendleton, B. & Garland, N.(1981). Reconsidering the dual-career marriage: A longitudinal approach. *Journal of Family Issues* 2, 205~224.
- 82) Rapoport, R. & Rapoport, R.N.(1971). Dual-career families.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 83) Reilly, M.D.(1982). Working wives and convenience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Mar.).
- 84) Rosen, M. D.(1985). Marriage is back in style-with a difference. *Ladies Home Journal*, June, 98~102.
- 85) Sanik, M.M.(1981): Division of household work: A decade comparison-1967~1977-.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2).
- 86) Schnittger, M.H.(1988). Role strain and coping among dual-career men and women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Blacksburg, Virginia.
- 87) Sekaran, U.(1986). Dual-career families: Contemporary organizational and counseling issu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Inc.
- 88) Sieber, S.D.(1974). Toward a theory of role accumul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567~578.
- 89) Slocum, W. L. & Nye, F.I.(1976). Provider and housekeeper roles. In F. I. Nye(Ed.). *Role structure and analysis of the family* (pp. 81~99). Beverly Hills: Sage.
- 90) Strober, M.H. & Weinberg, C.B.(1980).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Mar.).
- 91) Timmer, S.G.(1981). Coping with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 92) Trost, J.(1974). This family life cycle-An impossible concep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4, 37~47.
- 93) Voydanoff, P.(1985). Work/family linkages over the life cours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2, 23~32.
- 94) Voydanoff, P. & Kelly, R.F.(1984). Determinants of work-related family problems among employe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881~892.
- 95) Waite, L.(1980). Working wives and the family life cycl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 272~294.
- 96) Wright, J.D.(1978). Are working women really more satisfied? Evidence from several national survey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301~313.
- 97) Yogeve, S.(1982). Happiness in dual-career couples: Changing reserch, changing values. *Sex Roles* 8, 593-605.